

# 茶山の 學問觀과 學風

—傳統的인 儒學思想을 中心으로—

韓 洵 勗

- |                 |            |
|-----------------|------------|
| 一. 序 說          | 四. 茶山の 五學論 |
| 二. 茶山の 學問觀      | 五. 茶山の 學風  |
| 三. 當代 學風에 대한 批判 | 六. 茶山の 學統  |

## 一. 序 說

茶山 丁若鏞은 1762년(英宗 38年) 6월에 廣州 荇川(소내) 북쪽의 馬峴(마재)에서 부친 丁載遠(본관 押海)과 尹斗緒(尹善道後孫)의 孫女인 모친 海南尹氏와 사이의 제 4남으로 태어났다. 그리하여 그는 격화된 黨禍 속에서 그의 기구한 일생을 1836年(憲宗 2年 2月)에 鄉里의 舊第에서 75세를 일기로 조용히 끝마쳤으니, 그의 生涯는 星湖 李瀾이 別世한 10년 뒤서부터 시작된 18세기 後半에서 19세기 中期에 걸친 셈이 된다.

茶山の 先祖는 麗末에 黃海道 白川에서 살다가 朝鮮王朝에 들어서 漢陽에 移住하였으며, 그 후 七,八代에 걸쳐 계속 仕宦하였었다.<sup>(1)</sup> 그러나 肅宗朝의 이른바 甲戌(1694)·辛巳(1701)년의 政爭 뒤에는 이 丁氏一門은 上記 馬峴에 卜居하게 되었으며, 茶山の 高祖父이래 三世동안은 骨肉相殘하리만큼 黨議가 痼疾化된 官界에서 물러나 山澤田園 속에서 逍遙自適하는 생활을 하여왔다.<sup>(2)</sup>

그러던 중에 正宗이 即位하게 된 이후로 南人(時派)이 다시 官界로 出世하게 되면서 부친 丁載遠이 戶曹佐郎으로 漢陽에 僑居하게 되어, 茶山兄弟도 같이 上京하여 그들의 생활에 큰 轉機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sup>(3)</sup>

茶山은 10세 때부터 부친이 「閑居不仕」하던 5개년동안 經史·古文을 공부

(1) 《與猶堂全書》，自撰墓誌銘(續中本) 第一集 第十六卷 第1張(以下《與》， I-16, 1의 形式으로 略記함) 및 自撰墓誌銘(集中本) 《與》， I-16, 2~3.

(2) 《與》， I-17, 12 家乘遺事

(3) 《與》， I-16, 3 自撰墓誌銘(集中本)

하고 詩律에도 才質을 나타냈으며, 15세 때에 부친을 따라 上京한 그는 그의 형 若鉉·若銓·若鍾과 더불어 學問·思想上의 새로운 契機를 맞이하게 되었다.<sup>(4)</sup>

그가 儒敎의 基本精神은 老子·佛氏와는 달리 「人倫」을 존중하는 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交際」가 중요하다고 했듯이,<sup>(5)</sup> 上京 이후의 그가 그의 姻戚·朋友와 交游하게 된 것이 그의 學問·思想의 歷程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그가 上京後 모두 星湖의 學을 祖述하는 當代의 才士이며 星湖의 從孫인 李家煥과 茶山의 姊夫인 李承薰과의 交游는 그가 星湖의 學에 직접 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茶山이 「學問에의 뜻」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茶山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游京師 則聞星湖先生 漢 學行醇篤 從李家煥李承薰等 得見其遺書 自此留心經籍<sup>(6)</sup>  
時李公家煥以文章聲振一世 姊夫李承薰又飭躬勵志 皆祖述星湖李先生之學 鏞得見其遺書 欣然以學問爲意<sup>(7)</sup>

라고 하여, 그가 그들과 交游하여 星湖의 遺書에 접하여 經籍에 留意하고 學問에 立志하게 되었음을 吐露하였다.

이즈음에 일찌기 經學에 造詣가 깊은 위에 天主教信仰의 先導的 役割을 하게 된 李蘊은 茶山의 伯兄 丁若鉉의 妻男으로서, 星湖의 從孫 李家煥과 丁若銓·若鏞 형제와 사이에 학문적 交流가 두터웠으며, 혹은 또 星湖의 愛弟子·門下인 權哲身·金源星 등과 講學會를 갖는 등 學問講磨에 餘念이 없었다.<sup>(8)</sup>

茶山은 22세 때에 會試에 合格, 經義로서 進士가 되어 太學에 들어갔을 때 李蘊에게 從游하던 중 비로소 「西敎」(天主教)에 관해서 듣고 「西書」도 얻을 수 있어서 이것이 茶山의 思想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sup>(9)</sup> 그것은 그가 23세 때인 1784년의 일이었다. 과연 茶山은 西敎書에 깊이 感動되어 그가 26세되던 丁未(1787)년 이후 四,五年間은 아주 깊이 天主

(4) 同上

(5) 《與》, II-13, 43~44, 論語古今註

(6) 上記, 自撰墓誌銘(嶺中本)

(7) 上記, 自撰墓誌銘(集中本)

(8) 《與》, I-15, 39, 先仲氏(若銓)墓誌銘

(9) 上記, 自撰墓誌銘(嶺中本) 「既上岸 從李蘊游 聞西敎 見西書」, 自撰墓誌銘(集中本) 「甲辰夏 從李蘊 舟下斗尾峽 始聞西敎 見一卷書」

敎信仰生活에 들어갔던 것이다.<sup>(10)</sup> 그것은 당시에 있어서 傳統的인 儒學者로서는 思想上의 一大轉換이었던 것이다. 또한 茶山이 西學에 관심을 갖게 된 動機는 당시의 漢譯西學書를 통하여 天文曆象·農政水利·測量推驗之法 등 西洋科學技術에 대한 好奇心에도 있었던 것은 당대의 일반적인 趨向과도 같았다.<sup>(11)</sup> 그가 이른바 辛亥珍山事件을 계기로 天主教에 대해서 「遂絶意」하였던 것은 30세 때의 일로서, 당대의 同年輩라면 이미 學問·思想的인 基調는 잡혀지는 時期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茶山이 背敎하고 나서도 그의 西學(西洋科學)에의 關心에는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茶山의 學問·思想에 대한 綜合的인 理解를 위해서 우리는 역사 18세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學問趨向에서와 같이 傳統的인 儒學思想의 推移와 西學(天主教와 西洋科學) 思想의 受容과 그 反響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그리고 그 相乘作用(영향)까지도 정확히 분석·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미 茶山學에 대한 각기 側面에서의 研究論著가 있으나<sup>(12)</sup> 필자로서는 우선 茶山學을 傳統的 儒學思想의 側面에서 필자 나름대로 살펴서 그 位置를 吟味해 보고자 한다.

## 二. 茶山の 學問觀

조선왕조는 儒敎를 政治理念으로 삼아서 그 體制에 따라 兩班官僚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茶山도

王者之保有基業 必賴學問之力<sup>(13)</sup>

이라 하여, 王道政治가 學問에 힘입어야 한다는, 바꾸어 말하면 學問이 王

(10) 上記, 自撰墓誌銘(塘中本)「丁未以後四五年 頗傾心焉(西敎)」茶山은 이어서 「辛亥(1791)以來 邦禁이 嚴하여 드디어 絶意하였다」고 述懷하였다. 李藥에 관해서는 金玉姬〈西學의 受容과 그 意識構造〉, 二, 西學受容에 있어서의 李藥의 役割(《韓國史論》1) 參照.

(11) 拙稿〈天主教傳播와 李朝封建社會〉(《歷史學研究》第1輯, 1949) 參照.

(12) 茶山의 傳統的인 儒學思想에 관해서는 李乙浩교수의 〈茶山實學의 洙泗學의 構造〉(《亞細亞研究》Vol. VIII, No. 2) 《茶山經學思想研究》第一編, 序說, 第二節, 洙泗學의 修己治人의 實學(韓國文化叢書, 第19輯)이 있으며, 茶山의 西學受容에 관해서는 琴章泰교수의 〈東西交涉과 近代韓國思想의 趨移에 關한 研究〉第四章, 丁茶山의 思想에 있어서 西學受容과 儒敎의 基盤(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등이 있다.

(13) 《與》, II-19, 44, 詩經講義

政의 基本要件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래 士農工商의 士는 「仕」(仕宦)를 의미하여 「學」이라는 것은 즉 仕宦을 목표삼는 것이라 했다. (14)

그리하여 그는 學問의 本質에 관하여

古之爲學者 本之以孝弟忠信 文之以詩書禮樂

이라 하여 問學者 즉 學問한다는 일은 「君子의 恒業」이라고 했다. (15) 그 이른바 君子의 學은 다름아닌 「修己」와 「治人」 두가지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君子之學 不出二者 一曰修己 二曰治人 修己者 所以善我也 治人者 所以愛人也 善我爲義 愛人爲仁 仁義相用 不可偏廢 二者各執其一 不知變通 是其謬也 (16)

라 하였다. 이것은 君子(士大夫)의 학문은 다름아닌 「修己治人之學」임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修己와 治人は 「善我」(義)와 「愛人」(仁)으로 그 어느 한 편으로만 치우쳐서 다른 한편을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茶山은 또한 「孔子의 道」는 「孝弟」뿐이며 「修己治人」뿐이라고 하여, 그러므로 吾人は 學問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17) 그러므로 그는 또

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 (18)

이라고도 하고, 따라서 學問이 修己에서 그친다면, 儒道전체에서 볼 때 그것은 「半功」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면 學者는 마땅히 「經世之學」에 留意해야 한다고 했다. (19) 따라서 茶山은 孔子의 道는 「經世」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여, 학자가 章句에 구애되거나 隱逸이라 自稱하며 실제 일에 功力을 다하지 않는 것은 모두 孔子의 道가 아니라고 했다. (20)

그것은 體用의 관계와도 같다. 그러므로 修己와 治人을 같이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茶山은 體와 用의 관계로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4) 《與》, II-16, 24, 論語古今注 「學也者 學爲仕也」

II-5, 46, 孟子要義 「士者 仕也 鄉大夫士之通名」

(15) 《與》, II-14, 53, 中庸講義

(16) 《與》, II-6, 44, 孟子要義.

「余謂今之所謂士大夫 即古之所謂君子」(與, I-17, 爲盤山丁修七贈言)

(17) 《與》, I-17, 39, 爲盤山丁修七贈言

(18) 《與》, I-13, 牧民心書序

(19) 註(17)과 同

(20) 同上

君子의 學은 體用을 貴하게 여긴다. 진실로 治民·變俗·理財의 일에 불만한 것이 全無하다면 그것은 역시 徒學(헛된 학문)이다. (21)

그것은 또 바꾸어 말한다면 知行兼進을 의미한다. 茶山은 論語의 「學而時習」을 論하면서

學所以知也 習所以行也 學而時習者 知行兼進也 後世之學 學而不習 所以無可悅也 (22)

라 하여 「學而時習」이란 바로 知行兼進을 뜻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그는 儒學者로서 斯學에 종사하는 자가 孔子·子思의 말은 의우면서 그 가르침에 反하거나, 또는 그 아는데(知)에만 급하고 그 行함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功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23)

茶山은 그리하여 人材登用의 길을 넓힐 것을 말하면서 中國의 古例를 들어 農商의 賤業者 중에도 원래 「經世之士」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24) 따라서 「窮理」 자체만으로는 「事親敬長, 忠君牧民, 禮樂刑政, 軍旅財賦」 등 「實踐實用之學」으로서는 無實한 것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25) 그는 그의 小學珠串序에서

(前略) 於是 蒐輯古經以來 名物數目 選其有補於實學者 共得三百條 名之曰小學珠串 (26)

이라 하여, 修身의 根基가 되는 三百餘條를 古經에서 蒐輯하여 「實學」에 보탬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茶山은 이와 같이 修己와 治人, 體와 用, 知와 行 그 어느 하나에만 偏重하여 다른 하나를 소홀히하여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며, 修己, 體, 知에만 留意하여 治民의 「經世之學」 「實踐實用之學」에 實效를 거두는 學問이 아니면 그것은 「徒學」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學問觀을 지닌 茶山이 그 당시의 일반 學者들의 弊風을 어떻게 批判하고 있는가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21) 《與》, I-17, 39, 爲盤山丁修七贈言

(22) 《與》, II-7, 8, 論語古今注

(23) 《與》, I-8, 30, 對策, 中庸策

(24) 《與》, I-8, 41, 對策, 文體策

(25) 《與》, II-6, 36, 孟子要義

(26) 《與》, I-25, 1, 小學珠串序

## 三. 當代學風에 대한 批判

十八世紀이래 儒風의 퇴폐상에 대한 論駁은 이미 많이 일어나 있었다. 茶山은 그의 「俗儒論」에서 원래 「眞儒의 學」은 「治國安民·攘夷狄·裕財用·能文能武」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後世의 儒者는 章句·文字에나 拘碍되어 聖賢의 趣旨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릇 仁義理氣 외에 한 마디라도 입밖에 내면 이를 가리켜 雜學으로 간주하는 따위의 잘못은 俗儒가 하는 짓이라」고 하였다.<sup>(27)</sup> 그리하여 그는 또

兵農에 관한 학문도 역시 經世의 實務로서 君子가 이것을 몰라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學者가 이 兵農之事를 專治한다면, 그것이 끝내는 身心性命之學에 多小 害로울 것이다. 이것은 孔夫子가 가볍게 그 弊端을 말한 것으로, 學者가 그런 것에 널리 通하려고는 하지만 專治하려고 하지 않는 理由이다.<sup>(28)</sup>

라고 하여 兵農에 관한 학문(技術學)은 실제로는 「經世之學」으로 看做되나 學者가 그것만을 專治한다면 身心性命之學 즉 「修己」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것까지도 雜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임을 示唆하고 있다.

茶山은 當代의 일반 學風이 아주 駁雜한 病弊에 걸려있어 그러한 것이 一種의 風氣와도 같이 流布되어 東西南北이 「混然投合」되고 있는 것은 그럴만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學者 스스로가 「自駁自雜」한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sup>(29)</sup> 그러므로 그는 學問이라는 것이 그 本分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微小한 차질이나 옹색함이 필경에는 온 天下에 禍를 끼치는 弊端을 차아내는 것이라면 차라리 「循俗取進」하여 「昏昧無弊」함만 같지 못하다고도 했다.<sup>(30)</sup>

그리하여 茶山은 權堯臣에게 보내는 書簡에서

요즈음 또 群書를 博覽하는 것을 가리켜서·점차 駁雜해지고 好奇尙新하는 病弊에 빠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論議가 있으나 이것은 거의 그렇지 않은 것이다. 稗官小品이나 異端雜學의 書는 모두 물리쳐야 하겠지만, 우리 儒家의 正經文字 가령 九經箋釋이나 歷代史策과 같은 것은 어찌 이것을 廢棄할 수 있겠는가.

(27) 《與》, I-12, 8, 俗儒論

(28) 《與》, II-7, 31, 論語古今注

(29) 《與》, I-19, 5, 答方山書

(30) 《與》, I-19, 4, 答方山(道溟)書

라고 하여, 稗官小説이나 異端雜書는 이를 排斥해야 하지만, 群書를 博覽하여 「博雅該洽」하여 「獨自孤陋」하지는 않아야 하며, 本源을 涵養하는 餘力으로 經史공부에 努力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31)

茶山은 「修己」라는 本源의 涵養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經學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

經旨明 而後道體顯 得其道 而後心術始正 心術正 而後可以成德 故經學不可不力

이라 하고, 先儒의 說을 근거삼아 「黨同伐異」하여 論議의 여지도 주지 않는 자는 모두 先儒에 빙자하는 「圖利之輩」이고 「眞心向善者」가 아니라고 했다. (32) 더구나 學問하는 자가 狡獪해서 「經傳」을 操弄하려는 따위는 진실로 斯文의 賊이라는 것이다. (33)

그는 또 世間에는 「樂善之君子」가 있으나 그들의 通弊에 대해서는

或紕古務新 穿經鑿典 繳繞於名物 或棄智取容 揭箴掛圖 矯飾於起居揖讓之節 彼妄而嬰世 此鄙而欺己 二者均之 非實踐 下此者 惟名場利窟 (34)

이라 하여, 經典을 천착하는 듯하지만 「名物」에나 얽매이고 箴·圖 같은 것을 걸어놓지만 한갓 걸치장에 지나지 않아 망녕되거나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두가지 類가 다 같이 「實踐」성이 없는 것이며, 그보다도 못한 자는 오직 名利에만 따라 다니는 자라고 했다.

그러므로 茶山은

當代의 학자들이 헛되이 七書大全이 있다는 것만 알고 十三經注疏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비록 春秋·三禮가 天地를 밝게 비쳐준다 해도 科學科目에만 들어 있지 않으면 이들을 廢하여 講하지 않고 외면하여 介意치 않으니 이것은 진실로 斯文의 大患이요 世教上의 急務다. (35)

라고 하여, 이를테면 朱子集注의 科學공부에만 급급하고 春秋·三禮(儀禮·周禮·禮記) 내지는 十三經注疏와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31) 《與》, I-19, 7~8, 答權堯臣書  
 (32) 《與》, I-17, 40, 爲盤山丁修七贈言  
 (33) 《與》, I-18, 17, 上海左書  
 (34) 《與》, I-19, 6, 與北溪尹進士(就協)  
 (35) 《與》, I-8, 16, 十三經策(庚戌冬 內閣親試)

실제로 茶山은 中國 漢代의 儒者들이 訓詁에만 몰두하여 大義를 살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說經이 支離相訟하여 그 안에 義理가 없던 것을 朱子에 이르러 비로소 發明하여, 그것이 「萬世道學의 淵源」이 되었음을 認定하여 朱子の 功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36)</sup> 그렇다고 해서 學問(儒學)이라는 것이 本源을 생각지 않고 하여 스승에게 그저 追從만 하는 것은 學問의 本意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學이란 典籍을 稽考하여 先王의 道를 徵驗하는 것이오 從師受書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漢儒의 註經은 考古(訓詁)로서 方法으로 삼았으나 明辨이 不足하여 그 때문에 讖緯邪說까지 모두 收容함을 免치 못하였으나, 이는 「學而不思」의 弊이다. 이에 反하여 後世의 儒者들은 窮理를 爲主하였으나 考據가 소홀하여 그 때문에 制度·名物이 때로 違乖되는 수가 있으니 이는 「思而不學」의 허물이다.<sup>(37)</sup>

茶山은 또 당대의 學者들이 宋元諸儒의 理氣說을 矯正·論評하여 「內禪外儒」의 弊를 말하지만, 그들은 또 오로지 漢晉時代의 說만을 遵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茶山은 무릇 宋儒에서 나온 義理를 曲直不問하고 오로지 이에 反對하기에만 힘쓰려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을 위한 心術의 病이라고 하여 이를테면 어느 것이나 教條主義的인 「一邊倒」的 學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따라서 茶山은

學이라는 것은 義理를 講磨하여 切磋하는 것을 貴히 여겨야 하고 雷同해서는 안 된다. 가령 甲乙 두가지의 論이 있다면 서로 詳訂하기에 노력하여 그것이 결국 爛熳해서 바른 것으로 同歸하게 되는 것이 可하다.

고 하여, 甲論乙駁에 각기 雷同하는 것이 아니라 그 妥結에 노력하여 正論을 찾아서 같이 歸一되어야 한다고 했다.<sup>(39)</sup> 이와 같은 學風上의 時弊를 茶山은 그의 「五學論」에서 條陳하고 있다.

(36) 《與》, II-23, 7 또는 13, 尙書古訓

(37) 《與》, II-7, 30, 論語古今注, 一例를 들면 茶山은 鄭玄의 注에 대해서 「鄭玄之注 不無傳襲之誤 而先儒奉之如聖經 過矣」라 했다. (自撰墓誌銘, 集中本)

(38) 《與》, II-12, 2, 論語古今注

(39) 《與》, I-18, 26, 與金承旨(翰東)書 및 27, 答 金承旨書(癸丑)



## 四. 茶山の 五學論

—性理·詰訓·文章·科擧·術數之學의 弊—

茶山은 當代의 學問上의 弊風을 다섯가지 分野로 나누어서 論駁하고 있다. 그 五學이라 함은 性理之學·詰訓之學·文章之學·科擧之學 그리고 術數之學을 이룸이다. 첫째로 이른바 性理學者들은 理氣性情, 體用, 本然·氣質之性이니 理發氣發·已發未發·單指兼指, 理同氣異·氣同理異, 心善有惡·心善無惡 등 그 枝葉末端에 구애되어 서로 論駁을 일삼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決論을 얻지 못하고 怨恨만을 사서 그것을 代代로 풀지 못하고 각자의 主張만을 固執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위에 원래 士는 仕宦을 의미하여 「事君澤民」, 天下·國家를 위하여 일을 해야하는 것인데, 조금만 비위에 맞지 않으면 出仕하지 않는 隱居의 弊風이 있어 入山하면 山林이라고들 하지만, 그들이 出仕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經筵講說이나 春坊輔導의 職을 注擬할 뿐, 실제적인 錢穀·甲兵·訟獄·擯相 등의 일은 저들 「儒賢」이 담당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는 朱子를 尊尙한다」고들 하지만, 朱子를 이끌어서 自身을 防衛하는 당대의 俗學者들은 모두 朱子를 속이는 꼴이어서, 茶山은 「朱子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는가」고 反問하면서 이러한 者들과는 손을 잡고 堯舜周孔의 門에로 同歸할 수는 없다고 했다.<sup>(40)</sup>

둘째로 詰訓之學은 漢代 이후로 魏晉名儒로서도 先王先聖의 道·教의 本源的 奧義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朱子가 斯道를 中興하여 그 功烈을 豐盛하게 했으나, 朝鮮의 學者들은 訓詰는 漢注에, 義理는 朱子集傳에서만 求하거나 혹은 漢宋을 折衷한다고 하지만 그 實은 漢注에만 따를 뿐, 性命의 理·孝弟의 教·禮樂刑政에 있어서는 어둡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詰訓·章句의 異同沿革이나 上考하고 그 是非邪正을 辨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體行하는 方法은 求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날의 學者는 博學·審問·明辨·篤行을 具備했던 것인데, 「지금의 學者」는 「博學」만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茶山은 이런 者들과도 손을 잡고 堯舜周孔의 門에로 同歸할 수가 없다고 했다.<sup>(41)</sup>

(40) 《與》, I-11, 五學論 一

(41) 同上, 五學論 二, 茶山은 經籍의 章篇의 本意를 明確히 理解하기 위해서는 詰字訓句 즉 詰訓이 重要하다는 점을 強調하고도 있다. (與, I-21, 尙書知遠錄序說)

세째로 文章之學에 있어서는 그 폐단이 더욱 크다고 했다. 茶山은 옛날에는 內德外行을 尊重·培養하고 詩書禮樂으로 그 基本精神을, 春秋易象으로 天地變通의 正理와 萬物衆情에 도달할 것을 指標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易의 「溫柔激切함」, 詩의 「典雅縝密함」, 書의 「詳細而不可亂者」, 禮의 「修鬯而不可糝者」, 周禮의 「環奇吐欲而不可屈者」, 春秋左氏傳의 「睿聖無瑕」, 論語·孟子의 「文의 無咎함」 등 각 經典의 文章上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韓(愈) 柳(宗元) 歐(陽修) 蘇(東坡) 등의 諸文章은 안으로 修身하는데나 밖으로 「致君牧民」하는 데에 아무런 所用이 없으므로 이같은 것을 終身誦慕하는 일은 「吾道の 蝨蟹」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克己斷慾·爲善去惡을 목표로 삼는 楊墨老佛보다도 그 폐단이 심한 것으로 茶山은 생각했다. (42)

네째로 科學之學은 當代의 主流가 되어 있으나, 그것은 마치 倡優演戲의 技와도 같은 것으로 茶山은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堯舜周孔의 書를 읽고 老佛回黃의 教를 排斥하며, 詩禮와 史傳을 談論하는 데에는 제법 儒者의 체모를 갖춘 것같이 보이나, 그 實은 字句를 剽竊하고 눈에 띄는 것만 뽑아서 一時 눈을 眩惑케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性理에 대해서는 성내서 꾸짖고 誥訓學에 대해서는 편벽되다고 꾸짖으며, 文章之學에 대해서는 결눈질로 흘려보며 자신도 그것을 하는 듯이 여긴다. 그들이 어쩌다 科學에 入格하면 그의 父는 孝子라 쓰다듬고 國王은 良臣이라 간주하며, 宗族들은 사랑하고 朋舊는 존경하는 법석을 편다는 것이다. 한번 科學공부를 하게 되면, 그들은 禮樂은 外物로 여기고 刑政은 雜事로 간주하여 혹시 守令職을 맡게 되어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茶山 당대에는 이 科學之學마저 이미 衰하여 巨室名閥의 아들들은 이에 종사하려 하지 않아서, 오직 田間의 寒餓者만이 이에 종사하고 市井의 奴隸라도 儒者의 服飾만 갖추면 試場에 들어가는 紊亂相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43)

다섯째로 術數之學에 대해서 茶山은 그것은 「學」이 아니고 「惑」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天文五行, 道說秘記, 鄭鑑讖說, 風水地理 등 卜筮, 看相, 星耀斗數의 術數를 갖고 符衍하는 자는 모두 惑世하는 것이라 했다. 그

(42) 同上, 五學論 三

(43) 同上, 五學論 四, 茶山은 「科學의 學은 異端 중에서도 最酷者이다. 楊墨은 이미 낡았고 佛老는 아주 迂遠한데 科學之學에 이르러서는 가만히 그 害毒을 생각하면 洪水·猛獸에 비유해도 不足할 지경」이라고 했다. (與, I-17, 爲盤山丁修七贈言)

들이 太極圖, 河圖洛書, 九宮之數나 理氣善惡同異說 등을 談論하는 것이 屢屢한 性理先生같이 보이지만, 그 實은 虛名으로 重望을 얻어서 愚民을 속이는 것으로 學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44)

茶山은 이같은 다섯가지 弊習에 젖은 者들과는 손을 잡고 「堯舜之門」에로 同歸할 수 없다 하고, 그러한 風潮가 미만하여서는 孔子의 道는 衰頹할 수 밖에 없으니, 장차 누가 이것을 바로잡겠는가고 개탄하고 있다. (45)

茶山은 한편 당시의 陋儒들을 文·質을 論할 때에 「押文」을 주장하는 자를 이른바 「識時務者」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6) 그의 著書에 관한 見解는 茶山の 學問觀을 綜觀할 수 있게도 한다. 그는 무릇 著書에는 學問宗旨의 大綱이 定立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有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孔子의 道와 관련해서

大抵 此道는 孝弟로서 基本으로 삼고 禮樂으로 빛나게 하며, 鑑衡·財賦·軍旅·刑獄으로서 兼하게 하고 農圃·醫藥·曆象·算數·工作의 技術로서 緯를 삼으면 거의 그 全德에 가까울 것이니, 무릇 著書에는 이들 項目에 每양 配慮해야 한다.

고 하여, 儒學者로서 關心을 가져야 할 그 範圍를 提示해 주고 있다. (47)

## 五. 茶山の 學風

### —— 洙泗學的 修己治人之學, 그 의미 ——

茶山은 說經에 있어서 종래 支離相訟하여 온 것을 既述한 바와 같이 朱子에 이르러 비로소 義理가 發明되어 萬世道學의 淵源을 이루게 되었다 하여, 斯道에 있어서의 朱子의 功績을 劃期的인 것으로 높이 評價하여 마지 않았다. 그리하여 茶山은 여러가지 점에서 朱子의 明快한 說에 찬탄하기도 하였다. 그는 朱子가 古文을 疑心하여 古文을 배척한 것은 그야말로 大眼目으로 照破한 것이라 하여

凡出古文者 未可援以爲據也 …… 朱子用大眼日照破 一洗唐宋之陋 (48)

(44) 同上, 五學論 五

(45) 同上

(46) 《與》, I-9, 11~12, 論語古今注

(47) 《與》, I-20, 19, 上仲氏

(48) 《與》, I-20, 18~19, 上仲氏

라고 한 것이나, 또는 이른바 「四岳」에 대한 鄭玄이래의 註說을 否認하고 朱子가 「堯不可讓天下於四人 則四岳者一人也」라 한 것을 말하여 「朱子之說明白痛快」하다고 한 것<sup>(49)</sup>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茶山은 朱子가 그 道를 集大成하여 이에 會通하고 大統一하여 이를 重創하였으나, 그러나 그 本源의 年代가 아주 멀고 事實의 徵據가 없으므로 비록 朱子의 博古로서도 오히려 全的으로 믿어서 疑問의 餘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茶山은 기본적으로 學問하는 태도를 말하여

讀書하는 선비가 책을 펼치면 어떤 說은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어떤 뜻(義)은 어느 책(書)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명료하게 알지마는 그 說이나 뜻(義)의 取捨與否와 이에 따를 것인가 안따를 것인가는 聽學者 스스로가 擇할 것이오 억지로 牽強해서 따르게 하지 않는다면, 淹貫博雅之士가 그 사이에 더러 나와서 聖朝文明을 본받게 되고 聖門本源의 微言妙旨를 發하기에 足하니 어찌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고 하여, 學者가 牽強附會 雷同하는 教條的인 學風을 脫皮하여 堯舜周孔의 本趣旨를 創意的으로 發揮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0)</sup>

그는 經書의 章句해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性理說에 있어서도 朱子說의 「考核未周 闡發未及」한 점을 指摘하여, 詩經에 대한 朱子辨說에서 그러한 缺陷이 나타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즉

朱子辨說은 明白痛快하고 綜理密切하여 千人の 迷惑을 깨뜨리기에 足하다. 그러나 考核하는데 周倒하지 못하고 遺漏없이 채택하지도 못하여 혹은 그르게 斷定해서 가끔가다 先秦·西漢의 文을 잘못 證據로 삼은 경우도 있다.

고 한 것이 그 一例이다.<sup>(51)</sup> 혹은 또 性理說에 있어서 朱子의 人物同性論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茶山은 「人物之不能同性也 實矣」라 하여 자신의 主張을 披擲하고 있으며<sup>(52)</sup> 또한 朱子가 「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라고 한데 대해서도 批判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sup>(53)</sup> 이를 要컨대 茶山은 「朱夫子」가 道學의

(49) 《與》, II-22, 17, 尙書古訓

(50) 《與》, I-8, 24~25, 十三經策

(51) 《與》, II-17, 3, 詩經講義總論, 茶山은 經書解釋에 未洽한 점을 여기저기서 指摘하고 있다. [例: I-8, 39~41, 上奔園書(丙辰) I-19, 19, 與尹畏心(永僞)書]

(52) 《與》, II-6, 19, 孟子要義, 告子第六

(53) 《與》, II-4, 3~4, 中庸講義補

로 集大成한 偉大한 功績은 認定하면서도 朱子가 아무리 明睿하다 하더라도 제대로의 手續을 밟지 않고서 「眞源」(참된 本源)에로 곧바로 이를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그 未洽함이 있음을 示唆하고, 古注를 尊尙하는 것을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것도 아니고, 新說에만 무턱대고 따른다는 것도 正道가 아니라 하여, 功令만을 일삼는 俗學들의 「朱子一邊倒」의인 學問態度를 批判하고 있다. (54)

그는 宋朝의 儒賢들이 性을 論할 때 마치 佛氏의 人物同性論과 같이 하여 비록 그 本意는 樂善求道の 苦心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洙泗의 舊論」과 서로 저촉됨으로 감히 그 說에 全的으로 追從할 수가 없다고 했다. (55)

茶山은 그러므로 三經(詩·書·易) 三禮(儀禮·周禮·禮記)와 春秋·孝經· 등이 모두 聖賢의 遺訓이고 學問의 宗旨이기 때문에 이를 傳道授統하여 「洙爾雅泗의 眞源」에 接하고 반드시 여기에 「歸依」해야 한다는 것이다. (56) 이는 즉 그가 堯舜周孔의 本源의 學에로의 回歸로서 儒學의 指標로 삼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그는 李汝弘(載毅)에게 보내는 書簡에서도 經傳研究에는 「博考廣證 研精殫智」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남의 說에 附和雷同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57) 그렇다고 알팍한 所見으로 我執을 부려도 안된다는 것이며, 詩書禮樂易春秋와 같은 經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本源的인 眞意를 찾아서 古義에 어긋나지 않도록 「洙泗에로의 回歸」를 強調하고 있다. (58)

이에 茶山은 盤山 丁修七에게 보내는 贈言에서 讀書課程에 대하여

옛날에는 典籍이 많지 않아서 읽고 의우는데 努力하였으나 뒤에는 四庫書가 充棟汗牛의 지경으로 많아서 이를 모두 읽을 수가 없다. 다만 易書詩禮論孟等書만은 熟讀하고 그 후에 마땅히 講究考索하여 그 精義를 얻어 생각에 따라 割錄하면 바로 實得이 있을 것이니 그저 朗讀하기만 해서는 역시 實得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禮記諸篇을 읽고나서는 마땅히 國風·論語를, 다음에 大學·中庸, 그 다음에 尙書·史記·漢書를 읽고 나서 溫公의 通鑑을 再三 熟覽하고 혹은 朱子의 綱目도 역시 可하다.

(54) 《與》, I-20, 40~41, 又書(與金德叟書)

(55) 《與》, II-4, 2, 中庸講義補, II-6, 38, 孟子要義(宋朝의 諸先生들이 初年에 禪學에 많이 빠졌던 때문에, 이렇듯 禪學에 물들은 宋學이 洙泗의 舊觀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56) 《與》, I-8, 16~17, 十三經策

(57) 《與》, I-19, 29, 答李汝弘(載毅)書

(58) 《與》, I-19, 35, 與李汝弘(甲戌十月日)書 및 I-18, 5, 示二子家誠

고 했다.<sup>(59)</sup> 그는 또 禮學 특히 喪禮는 「最浩最急」한 것으로 먼저 儀禮·經傳을 反覆參訂하고 나서 杜氏通典 중의 晉宋諸儒의 喪論은 더욱 보지 않을 수 없으나, 먼저 그 本源에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 다음에 家禮(朱子) 等書를 取하여 그 자세한 것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sup>(60)</sup> 이렇듯 茶山은 學問研究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洙泗에로의 回歸」를 그 指標로 삼고 있으나, 그 課程에서 朱子の 學을 排除했던 것은 아니다.

이제 茶山은 그의 두 아들에게 學問의 次序를 敎示하면서

반드시 먼저 經學으로서 학문의 基址를 닦고 나서 前史를 涉獵하여 그 得失理亂의 源을 알아야 하며 또 마땅히 「實用之學」에 留心하고 古人의 「經濟文字」를 보아야 한다.

고 하는가 하면 數十年來로 괴상한 議論이 있어 「東方文學」을 盛斥하여 先獻文集에 눈을 붙이려 하지 않게까지 된 것은 커다란 病痛이며, 士大夫子弟가 國朝의 政事를 알지 못하고 先輩의 議論을 보지 않으므로, 비록 그 學問이 古今을 꿰뚫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鹵莽된 것이라고 그는 批判했다. 그는 이어서 詩集은 서둘러서 볼 필요가 없으며 疏劄·墓文·書牘 등속을 넓게 보고, 또 鵝洲雜錄·盤池漫錄·青野謾輯等書를 廣搜博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sup>(61)</sup> 한편으로 그는 尙書·左傳을 깊이 研究한 餘力으로는 三國史, 高麗史, 國朝寶鑑, 輿地勝覽, 懲毖錄, 燃藜室記述, 西崖集, 礪溪隨錄, 星湖僊說, 文獻通考 등 書를 보고 그 要旨를 瞻寫해야 한다고 했다. 그 위에 柳惠風의 十六國懷古詩와도 같이 詩中에 담겨있는 名跡도 抄探해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sup>(62)</sup> 茶山은 그 뒤에 다시 그의 兩兒에게 朱子全書 중에서 그가 敎示한 十二個條 篇目에 따라 抄取成編할 것을 일러두고 있다.<sup>(63)</sup>

茶山の 學風은 이를 要컨대 經學을 基盤으로 삼아 「博考廣證研精殫智」의 學問態度로 堯舜周孔의 眞義를 파악하고, 그리하여 實用之學, 經世之學에 留意하여 修己治人의 實効를 거두는 그러한 것을 그 指標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그는 自己 나라의 故事와 先輩의 學問을 度外視하여서는 말도 안된다

(59) 《與》, 1-17, 41, 爲盤山丁修七贈言

(60) 《與》, 1-17, 40, 爲盤山丁修七贈言

(61) 《與》, 1-21, 4, 寄二兒書(壬戌十二月廿二日, 康津謫中)

(62) 《與》, 1-21, 8~10, 寄二兒書(丙子六月初四日)

(63) 《與》, 1-21, 14, 寄兩兒書. 成編된 書名을 「朱書余佩」라 했고 篇目 十二條는 立志, 革舊習, 收放心, 檢容儀, 讀書, 敦孝友, 居家, 睦族, 接人, 處世, 崇節儉, 遠異端으로 되어 있다.

는 것이다. 그는 萬世道學의 淵源을 이룬 朱子의 劃期的인 功績을 찬탄하고 그 나뉠름으로 尊敬하면서도 어디까지나 朱子一邊倒의 當代의 弊風을 超克하여 洙泗의 本源에로 回歸해야 한다는 基本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傳統的인 儒學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다름아닌 「洙泗學的인 修己治人の學」이라고 性格지을 수 있으나 여기서 「洙泗學的」이라는 말의 眞意에는 「朱子를 넘어서」라는 뜻이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理解·把握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그러한 學問의 趨向은 茶山에서 비로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 六. 茶山の學統

茶山은 星湖의 學을 祖述하는 星湖의 從孫 李家煥과 자신의 姊夫 李承薰에 따라 星湖의 遺書에 처음으로 接하면서부터 學問에 뜻을 품게 되었다. 茶山の 仲兄인 若銓도 星湖의 學을 承受한 李潤夏·李承薰·金源星 등과 石交를 맺어

沿乎武夷 溯乎洙泗 揖讓講磨 相與進德修業

하였으며, 그는 또 그의 兄 若銓의 妻男 李蘊에 從游하여 曆數之學·幾何原本 등 漢譯西洋科學書를 聞見할 수 있었고 또한 西教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이윽고 天主教信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sup>(64)</sup> 茶山 역시 李蘊에 從游하여 西教와 西書를 見聞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契機로 茶山도 여러 兄과 交友들 부 더불어 天主教를 信仰하게 되고 1787(丁未)년 26세 이후로 四, 五년 동안은 이에 아주 「傾心」했던 것이다. 그는 1791년에 背教하였으나, 그의 學問思想의 基調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西學의 受容과 영향이 또 다른 側面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었다.

茶山이 34세 때 金井察訪에 赴任하였을 때에는 星湖의 從孫 李森煥이 中心이 되어 李應教, 李鳴煥(森煥의 弟) 등과 더불어 溫陽의 石巖寺에서 講學會를 가졌을 때에도 星湖의 遺書(家禮疾書)를 繕寫·讎校하는 한편 「日講洙泗之學」하였다는 것이었다.<sup>(65)</sup> 茶山은 그 十年 뒤에 康津 流配地에서 講學 당시를 回想하며

(64) 《與》, I-15, 39, 先仲氏(若銓)墓誌銘

(65) 《與》, I-16, 7, 自撰墓誌銘, I-21, 23, 西巖講學記

今正學衰熄 俗論謬固 尙賴退陶之後 復有星翁 使吾輩私淑於殘編斷簡之中 亦足以得其門路

라 하고 星湖의 學에 言及하여

蓋星翁之學 一生尊信朱子 故諸經疾書 皆就朱子傳註 發揮而闡揚之<sup>(66)</sup>

라 했으나, 그 뒤 星湖의 愛弟子였던 權哲身의 墓誌銘에서는 星湖先生에 言及하여

星湖先生 篤學力行 沿乎洛閩 溯乎洙泗 開發聖門之扃奧 披示來學

이라 하여, 星湖가 洛閩(程朱學)에 따라서 洙泗에로 거슬러 올라가 聖門의 빛장안(淵源)을 開發하여 後學에게 헤쳐서 보여 주었다고 했다.<sup>(67)</sup>

실제로 星湖의 學도 「洙泗學的 修己治人之學」의 傾向을 띠어서 朱子를 尊尙하면서도 窮經에는 그 經義에 心通(心得)하는 일을 중요시하였으며, 箋註는 原典의 路脈을 지도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오로지 註에 依存해서만은 옳지 않다고 했다.<sup>(68)</sup> 이같은 星湖의 學風은 그의 從子 李秉休에게로 이어져서, 李秉休도 孔子를 私淑하는 者로서 朱子를 尊崇하지 않는 者가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一字半辭라도 朱子의 集傳·章句 사이에 疑問을 품으면 바로 朱子를 背反한다고 排斥하고 賢者를 侮蔑한다고 規定하는 弊風을 論駁하였던 것이다.<sup>(69)</sup>

星湖學의 이같은 洙泗學的인 性格의 淵源을 우리는 더 遡及해서 찾아 볼 수가 있다. 星湖가 眉叟 許穆을 私淑하여 眉叟를 통하여 退溪의 學統을 이었다는 것은 樊巖 蔡濟恭의 星湖墓誌銘에서 言及되었으며, 眉叟가 「洙泗正脈으로 還元하려는 學風」을 지녔으며, 그것이 南人의 그러한 學風의 起點이라는 論及은 이미 考究된 바 있다.<sup>(70)</sup>

이제 尹鑄에 관해서도 이미 그가 「經傳의 奧義를 어찌 朱子 혼자만이 알고 吾輩는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인가」하여 中庸을 改註하여 「其學多背程朱之

(66) 《與》, I-19, 7, 答李文達

(67) 《與》, I-15, 33, 鹿菴權哲身墓誌銘

(68) 星湖의 學風에 관해서는 拙著, 《星湖李濱研究》, 一의 3, 星湖의 學風 參照.

(69) 《貞山雜著》, 第十, 論學術之弊

(70) 鄭玉子, 〈眉叟許穆研究〉, 二, 禮論 pp. 210~212 (《韓國史論》5) 參照. 星湖의 父親과 許穆·尹鑄와의 關係에 관해서는 拙稿, 〈白湖尹鑄研究〉, (一)의 2, 白湖의 生涯(《歷史學報》第十五輯) 參照.



論』이라는 理由로 斯文亂賊으로 몰렸었던 사실은 다 아는 일이다.<sup>(71)</sup> 許穆·尹鏞은 星湖의 父親 李夏鎭과 같이 仕宦했고 같이 黜斥되어 賜死되었다. 茶山은 星湖의 愛弟子였던 權哲身의 墓誌銘에서

公(一權哲身)少時慕夏軒(一尹鏞)嘗曰退溪之後夏軒之學有本有末夏軒之後星翁之學繼往開來<sup>(72)</sup>

라고 하여, 星湖는 또 尹鏞의 學을 繼承한 者로 認識되었다는 것은 星湖의 學을 尹鏞의 學과 그 系統을 같이하는 것임을 示唆해 주는 것이며, 또한 그 學問의 趨向으로 보아서도 系統을 지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筆者로서 맺어야 할 結論은 朝鮮王朝後期에 있어서의 學問上의 弊風은 「朱子一邊倒」로 흘렀다는 점이며, 茶山은 이같은 弊端을 克服하여 「洙泗學的인 修己治人の 學」으로, 堯舜周孔의 本源의 學에로 回歸할 것을 強調하여 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洙泗學的」이라는 眞義에는 「朱子를 넘어서」라는 뜻이 明示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學風의 起點은 眉叟 許穆에서 있었다고 하여도 그 系統은 許穆—尹鏞—李瀾—丁若鏞으로 지워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丁若鏞을 「近世洙泗學派의 創始者」라고 할 것이 아니며, 또 黨色의 源流를 따져서 尹鏞를 排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1982年 5月)

(71) 上記 拙稿, 三, 白湖의 學風과 그 反嚮 參照.

(72) 《與》, I-15, 35, 鹿菴權哲身墓誌銘(附見閒話條) 茶山은 本引用文에 이어서 「此仲氏(若銓)所聞 晩年不復如是論 余所聞者 以夏軒爲迂闊 而漫筆一卷 猶歎服不已」라고 附言하고 있다.